

김동일 한방병원장, 조계사 불교대학 초청 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제 34회 53선지식 구법 여행’에 초청 명사로 초대 불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53선지식 구법 여행’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등대삼아 보리심을 찾기 위해 53 명의 선지식에게 법을 묻고 배우며 보현행원을 발원했듯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와 희망을 찾는 자리이다. 이번 법회는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건강한 중년, 지혜로운 가령(加齡), 행복한 삶을 위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2018학년도 하반기 임용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1일 ‘2018년도 하반기 보직자 및 직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본원 4층 중강당에서 진행된 이 날 수여식에는 의료원장을 비롯해 일산병원장, 일산한방병원장, 일산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도 하반기 보직 및 직급 승진 인원은 보직승진 및 이동자 4명, 직급 승진자 49명으로 총 53명이다. 수여식에 참석한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대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함께 나눠 달라”며, “앞으로 병원장 및 행정처장과 함께 하나 되는 동국대학교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러시아어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외국인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 러시아어로 된 병원 공식 페이지를 개설했다. 새롭게 오픈된 러시아어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 내원을 희망하는 러시아어 권 외국인 환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지 내부 콘텐츠에 각 진료과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질병과 증상에 대한 진료 안내와 각 진료과별 시술 및 수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환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페이지 내부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백용해 국제진료센터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브랜드인 메디컬 코리아를 알리는 데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여 받은바 있다.



원무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원무팀은 지난 8월 23일 본원 4층 중강당에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원무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례별 기본 교육을 위해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를 초빙해 배뇨장애 질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시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등 배뇨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환자 응대 및 접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원무팀은 이 밖에도 환자 응대에 필요한 업무역량 향상과 환자 진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진료과와 협력하여 매월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스마일~ ‘시력검사실 이호석 선생님’

언제나 밝게 웃으며 환자를 대해 주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스마일 이호석’ 선생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안과 진료를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진료를 받기 전 시력검사실 이호석 선생님의 안내로 검사를 받았는데 밝게 웃는 얼굴로 너무도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한테만 친절하길 싶어 계속 이호석 선생님을 지켜보았는데 모든 분들에게 미소 가득한 얼굴로 안내와 시력검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원래 친절하신 분이라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다시 안과를 방문했을 때 역시나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하며, 모든 환자분들께 친절과 미소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춘 분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계시니 모든 환자들이 아픈 마음까지도 치료가 될 듯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마음의 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밝고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대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